

# 녹용의 기원 개정될 듯

매화록, 마록, 대록으로 한정



모든 사슴에서 채취한 뿔은 녹용(鹿茸)으로 통용되어야만 하는가. 녹용을 소비하는 나라중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적어도 순록(레인디어) 뿔을 제외하고는 녹용으로 통용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최근 한의학 분야의 신문기사를 인용해 보자.

<녹용의 기준이 확정됐다. 그간 회분의 함량과 함께 「동속근연동물」의 뿔을 녹용에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는 논란끝에 이중 엘크(Elk)만을 녹용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결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녹용의 범위는 매화록과 마록 그리고 동속근연동물중 엘크의 뿔까지로 한정된다.

녹용의 범위와 관련해 지난 90년 개정된 한약규격집에는 매화록과 마록 이외에 사슴과에 속하는 동속근연동물까지 모두 녹용에 포함했으나 동속근연동물중 비교적 약효가 떨어지는 인도·티벳·네팔 등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록, 백마록, 바라싱가, 엘르, 루사 등을 녹용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동속근연동물중 임상에서 약효가 좋은 것으로 분석된 엘크(대록)는 종전대로 녹

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따라서 녹용의 범위는 유럽과 소아시아 소련 중국 등지에서 서식하는 붉은사슴, 적록(赤鹿), 마록(馬鹿)과 북미 중국 몽고에서 서식하는 엘크와 와피티, 대록(大鹿),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에서 서식하는 일본사슴(꽃사슴) 등이 녹용으로 인정된다.>

아직 「동속근연동물」을 삭제하고 「엘크」를 추가하겠다고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초 우리 협회에 「대록(大鹿, Cervus Canadensis)의 규격기준 검토 의뢰」에 관한 공문을 보내 왔다.

8월 2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녹용의 기원종 「동속근연동물」을 삭제하고 대록(大鹿, Cervus Canadensis)을 추가하여 대록(大鹿)의 성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회에 규격기준 자료를 의뢰한 것이다.

그동안 협회는 수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녹용의 정의(반용주)」를 개정해 줄것을 건의해 왔다. 「동속근연동물」을 삭제하여 저급

유사녹용 유통을 근절해 줄것을 촉구한 것이다. 협회의 이러한 노력이 마침내 가시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순록(레인디어)만을 빼놓고는 세계 각지에서 서식하는 사슴의 뿔은 모두 녹용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녹용이 약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동양3국인 한국, 중국, 일본중 유독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그래왔다.

왜, 그래왔는지 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장이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한대석 박사의 자료를 소개한다.

#### <○ 사슴의 분류

사슴(鹿)은 척추동물문(脊椎動物門), 포유동물강(哺乳動物綱), 유태반아강(有胎盤亞綱), 유제목(有蹄目), 반추아목(反芻亞目)의 사슴과(鹿科, Cervidae)로 분류되고 있다.

이 사슴과는 「동물백과사전」(The Encyclopedia of Animals : 영국발행)에 따르면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1. 사슴과 분류요약

사슴과 (Cervidae)	사슴아과 (Cervinae)	4속 14종 71아과	Dama sp.	1종	2아종
			Axis sp.	4종	4아종
			Cervus sp.	8종	65아종
			Elaphus sp.	1종	
	고라니아과 (Hydropotinae)	1속 1종 2아종	Hydropotes sp.	1종	2아종
	흰꼬리사슴아과 (Odocoilinae)	9속 15종 96아종	Odocoileus sp.	2종	49아종
			Capreolus sp.	1종	3아종
			Alces sp.	1종	6아종
			Rangifer sp.	1종	9아종
			Blastocerus sp.	1종	
			Ozotoceros sp.	1종	3아종
			Hippicamelus sp.	2종	
			Mazama sp.	4종	24아종
문착아과 (Muntiacinae)	2속 6종 20아종	Pudu sp.	2종	2아종	
		Muntiacus sp.	5종	17아종	
		Elaphodus sp.	1종	3아종	

표2. Cervus sp. 일람표

일 반 명 칭	학 명	체 구	분 포	서 식 지
붉은사슴, 적록, 마록 red deer, maral	Cervus elaphus (12아종)	어깨높이 (h): 70~150cm 몸무게 (w): 73~340kg	산림 숲	유럽, 소아시아, 소련, 중국
엘크, 와피티, 대륙 wapiti, elk	Cervus canadensis (13아종)	h: 130~152cm w: 240~454kg	초원 숲가장자리	북미, 중국, 몽고
일본 사슴 sika (Japanese) deer	Cervus nippon (13아종)	h: 65~109cm w: 28~81kg	산림	한국, 일본, 대만, 중국동북부, 북부, 남서부
물사슴, 수록 sambar	Cervus unicolor (16아종)	h: 61~142cm w: 227~272kg	산림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남부, 버마, 인도
흰입술사슴, 백순록 Throid's deer	Cervus albirostris	h: 122cm w: 불명		티베트
늪사슴, 바라싱가 swamp deer, barasingha	Cervus duvauceli (2아종)	h: 119~124cm w: 172~182kg	습지대 초원	인도 북부, 중앙부, 네팔
타민사슴, 엘드사슴 Eld's deer, thamin	Cervus eldi (3아종)	h: 114cm w: 불명	습지대	인도, 태국, 버마 베트남, 해남도
루사사슴 Rusa (Timor) deer	Cervus timorensis (6아종)	h: 86~110cm w: 86~98kg	초원 산림	인도네시아

○ 녹용의 정의

녹용은 대부분이 동양 3국 (한국, 중국, 일본)에서 약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따라서 각국의 공정서 혹은 준공정서 등은 약용으로 쓰일수 있는 사슴의 뿔의 채취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국 : 대한약전의 생약규격집

「이 약은 매화록 (Cervus nippon) 또는 마록 (Cervus elaphus) 및 동속근연동물 (사슴과 Cervide)의 털이 밀생되고 골질화되지 않은 어린 뿔 (幼角)이다.」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약전

「이것은 녹과 (鹿科) 동물 매화록 (Cervus nippon Temminck) 혹은 마록 (Cervus elaphus)의 숫사슴의 골화되지 않고 털이 밀생한 어린뿔 (幼角)이다. 전자를 화녹용, 후자를 마녹용이라고 한다.」

일본 : 일본은 법적공정생약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T. Namba의 원색일본화한약도감이나 동경생약학회가 편찬한 신상용화

한약집 또는 여러종의 생약학교과서에 「만주 사슴 (매화록) Cervus (Sika) nippon mantchurcus Swinhoe 또는 만주 붉은 사슴 (마록) Cervus elaphus xanthopygus Milne-Edwards등의 각화되지 않은 어린 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동양3국에서는 Cervus nippon과 Cervus elaphus를 기원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Cervus elaphus는 12아종이, Cervus nippon은 13아종이 있으나 각국은 이들 아종들에 대해서로 다른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마녹용을 예로 살펴보면 중국약전의 경우 「Cervus elaphus의 유각 (幼角)」이라고만 규정하였으므로 녹용의 성상이 약전규정에 적합하면 기본종 뿐만 아니라 12아종 중 어느 것이라도 기원동물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일본의 경우는 하나의 아종인 Cervus elaphus xanthopygus 1종만이 공정서상의

기원동물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하여 한국은 마록의 기본종 및 12이종뿐 아니라 동속 즉, Cervus속(屬)의 것으로서 약 전 성상(性狀) 규정에 적합하다면 어느 것이나 기원동물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위를 요약하면 기원동물에 대한 규제는 일본이 가장 까다롭고 한국은 매우 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를 살펴본 바와 같이 「사슴의 분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나 영국에서 발행한 「동물백과사전」의 내용이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녹용의 정의」를 유심히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중국의 규정을 골간으로 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나 일본의 규정에는 없는 「동속근연동물」이 우리나라 규정에는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전세계에서 서식하는 사슴 뿔이 무작위로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암수 공히 뿔이 나오는 순록(레인디어)의 뿔까지 한때 수입된 경우도 있었다.

일본은 사슴의 기원동물에 대한 규정을 매우 까다롭게 다루고 있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뉴질랜드나 캐나다에서 생산된 녹용이 일절 유통되지 않고 있다. 일본 국민의 정서상 녹용 소비가 많지 않아서 이기도 하지만 규정 자체도 이들 두나라의 녹용을 녹용으로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나라 규정에 「동속근연동물」이 추가되었을까. 원래 규정에는 「동속근연동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0년 1월 국산녹용(꽃사슴)은 생약규격집에 없는 녹용이라는 고발사건이 있어 같은해 2월 19일 「동속근연동물」이라는 6자를 추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동속근연동물」을 삭제하고 원래 규정대로 환원할 경우 이번에는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엘크(Elk)」 녹용이 녹용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학자마다 주장이 약간씩 다르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엘크의 학명이 Cervus canadensis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생약규격집을 보면 기원동물을 Cervus nippon과 Cervus elaphus로 규정하고 있어 Cervus canadensis인 엘크는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점을 고려하여 「동속근연동물」을 삭제하는 대신 「대록(大鹿, Cervus canadensis)」을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녹용의 기원이 확실히 정립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주품종인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에서 생산된 녹용만 녹용으로 인정받고 다른 사슴에서 생산된 뿔은 녹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학명이 Cervus nippon, Cervus elaphus, Cervus canadensis인 사슴의 뿔만 녹용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대록(大鹿, Cervus canadensis)의 규격기준 자료」를 사진을 포함하여 지난 8월 17일자로 우송했다.

그후 8월 2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본 결과 좀더 자료를 보완하고 관련자들의 이해를 구한후 재심의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양록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녹용의 「현행 성상 규격기준」과 협회에서 조사하여 보건복지부에 보낸 「대록 규격 기준자료」를 소개한다. 표3, 표4 참조.

표3. 현행 성상규격 기준

품 종	부 위	녹 용	녹 용 중 품
매화록	길 이	이 약은 원주상으로 분지되어 길이는 17~20cm, 지름 4~5cm로 끝은 둔한 원형으로 되어 있다.	이 약은 원주상으로 분지되어 길이는 20~50cm, 지름 4~5cm이다.
	모 색	바깥면은 황갈색~갈색의 바탕에 적황색~갈황색의 부드러운 털이 밀생되어 있다. 이 털은 윗쪽으로 갈수록 많다.	바깥면은 황갈색~갈색의 바탕에 적황색~갈황색의 부드러운 털이 밀생되어 있다. 이 털은 윗쪽으로 갈수록 많다.
	절 단 면	절단면은 많은 작은 구멍이 있어 해면상을 이루고 옅은 황색이다.	절단면은 많은 구멍이 있어 해면상을 이루고 옅은 황색이다.
마 록	길 이	이 약은 원주상으로 분지되어 길이는 20~40cm, 지름 4~6cm이다.	이 약은 원주상으로 분지되어 길이는 40~70cm, 지름 4~6cm이다.
	모 색	바깥면은 회록색의 바탕에 회색~회흑색의 털이 밀생되어 있다.	바깥면은 회록색의 바탕에 회색~회흑색의 털이 밀생되어 있다.
	절 단 면	세로로 자른면을 보면 윗부분은 옅은 황색이며 아랫부분은 자적색이다. 질은 가볍고 딱딱하다.	절단면은 많은 구멍이 있어 해면상을 이루고 세로로 자른면을 보면 윗부분은 옅은 황색 혹은 자적색이며 아랫부분은 회백색이다. 질은 가볍고 딱딱하다.
	회분함량	25.0% 이내	25.01~35.0% 이내

표4. 대록 규격기준 자료

	녹 용	녹 용 중 품
1.반용주 기원	이 약은 꽃사슴(梅花鹿) <i>Cervus nippon</i> , 붉은사슴(赤鹿) <i>Cervus elaphus</i> , 큰사슴(大鹿) <i>Cervus canadensis</i> (사슴과 Cervidae)의 숫사슴 털이 밀생되고 골질화되지 않은 어린 뿔이다.	털이 밀생하고 약간 골질화된 뿔이다.
2. 성상 녹용의 길이	이 약은 원주상으로 분지되어 길이는 40~70cm, 지름 4~8cm이다.	이 약은 원주상으로 분지되어 길이는 80~110cm, 지름 4~10cm이다.
모색 및 상태	바깥면은 회갈색의 바탕에 회색~회갈색의 털이 밀생되어 있다.	바깥면은 회갈색의 바탕에 회색~회갈색의 털이 밀생되어 있다.
세로절단면의 성상 (조직의 성상과 빛깔)	세로로 자른면을 보면 윗부분은 옅은 황색이며 아랫부분은 자적색이다.	세로로 자른면을 보면 윗부분은 옅은 황색 혹은 자적색이며 아랫부분은 회백색이다.
가로절단면의 성상 (조직의 성상과 빛깔)		절단면은 많은 미세한 구멍이 있어 해면상을 이루고 자적색이다.
각질화 상태	질은 가볍고 딱딱하다.	질은 가볍고 딱딱하다.
참고사항		최하단 녹용 절각부위(10~15%)는 법정 회분을 초과부위에 해당됨.